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봇'

# “바퀴 없이 걸레에 하중 실어 청소실력 높였죠”

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봇에는 바퀴가 없다. 대신 바닥에 달린 동그란 물걸레 두 개가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 에브리봇이 종횡무진 움직이며 물걸레 청소를 한다. 정우철 에브리봇 대표는 “바퀴 없이도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다른 회사에는 없는 차별점”이라며 “걸레보다 바퀴에 하중이 실리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에브리봇은 하중이 오롯이 걸레에 실려 청소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만 1만7000대 팔려

당공 모양의 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봇 RS500은 로봇청소기 전문기업 에브리봇이 지난해 4월 시장에 내놓았다. 청소에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빼고, 본연의 기능인 청소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판매량이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만7000대 팔렸다. 월 판매량으로는 국내 로봇청소기업계 1위다. GS홈쇼핑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지난 4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출시 후 이달까지 약 8만 대가 팔려 12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정 대표는 “유럽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14개국에 수출 중”이라며 “해외에서도 에브리봇 로봇청소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 유럽 면세점에도 입점했다”고 말했다.

◆신제품 RS700 출시

에브리봇은 RS500의 뒤를 잇는 신제품 RS700을 17일 출시한다. 배터리 용량을



정우철 에브리봇 대표가 17일부터 판매하는 신제품 에브리봇 RS700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국내 로봇청소기 업계 1위 14개국에 수출... 면세점에도 입점 두께 줄여 침대·쇼파 밑도 청소 흡입 방식 로봇청소기도 곧 출시

늘리고 효율을 높여 100분 충전으로 100분 동안 청소할 수 있다. 50분 사용한 뒤 더러워진 걸레를 새 걸레로 교체해 나머지 50분 동안 청소를 시키면 된다. RS500은 70분 충전으로 50분간 사용 가능했다.

RS500은 충격감지센서를 통해 사람과 부딪히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청

소를 했다. 신제품은 광학센서를 넣어 충돌하기 전에 장애물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정 대표는 “주변 사물과 부딪치지 않고도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청소 중 충돌 소음을 크게 줄였다”며 “터보 모드도 적용해 로봇 이동 속도를 20% 더 끌어올려 빠른 청소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두께를 14cm에서 11cm로 줄여 쇼파나 침대 아래도 좀 더 쉽게 청소할 수 있다. 기본 색상 바탕을 검정으로 하고 옐로우, 연두 등 환경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흡입형 로봇청소기도 내놓을 것

에브리봇은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와이드벤치-어린이용 터치팬 모션팬키즈 070-7603-0492 △홀바이오-담그네 발효용기 (053)565-6661 △에브리봇-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봇 (031)759-8917 △아이쿠우-크라크라 3in1 멀티체어 1644-1918

못할 뻔한 로봇청소기다. 2014년 세계 최대 전자쇼인 미국 CES에 아이디어 수준의 시제품을 공개해 주목받았지만 당시 정 대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같은 해 파산했다.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에브리봇을 설립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해 RS500을 시장에 내놓았다. 20여 개에 이르는 등록특허가 제품 개발에 큰 힘이 됐다. 에브리봇은 물걸레 로봇청소기에 이어 흡입 방식으로 집안을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정 대표는 “비슷한 제품으로는 후발 주자로서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며 “걸레 두 개를 회전하며 이동하는 세계 유일한 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봇처럼 혁신적인 로봇청소기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뇌질환 영상 판독하는 AI 개발

(인공지능)



김원태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대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자료 판독에 관해선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앞손을 개발한 IBM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원태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대표(사진)는 16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체 개발한 AI 적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며 “승인이 나면 AI를 적용한 국내 1호 의료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AI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은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최초다. 의료기기 등급도 두 번째로 높은 3등급으로 신청했다. 의료기기 등급은 높을수록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AI를 활용해 뇌질환 영상 자료를 판독하는 의료기기다. 뇌질환과 관련한 수십만 장의 영상 자료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 의사가 육안으로 영상 자료를 관독할 때 놓칠지 모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 3월 완성했다. 김 대표는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은 다양한 분석 자료가 있는 다른 질환에 비해 진단하는 과정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자료가 많이 의존한다”며 “판독 과정에 AI를 적용하기가 장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시험을 통해 본격적인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자체 실험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고 했다.

이번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은 김동익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와 손을 잡았다. 김 교수는 한국인 뇌MRI영상 데이터센터장을 맡으며 전국 11개 대학병원에서 뇌질환 관련 영상 자료를 25만 장 이상 모아 분류했다. 김 대표는 “뇌질환 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것은 김 교수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김 교수에게 지난해 3월 기술을 이전받아 함께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허용에는 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해 식약처가 발표한 AI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 과정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연구했고 신청하기 전 식약처 산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받았다”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판매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 중소 근로자 임금, 대기업의 59.6%

노동생산성은 30.9%에 불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6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2016년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 수준이며, 이 중 제조업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51.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임금 격차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의 71.0% 수준이었고, 대기업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59.7%에 그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탱크웨어, 아이언맨 블랙박스 출시

국내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전문기업 탱크웨어가 업계 최초로 미국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마블과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내놨다. 탱크웨어는 마블 컬래버레이션 블랙박스(모델명 QXD1000) 알파 아이언맨 에디션(사진)을 2000대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블 히어로 캐릭터인 아이언맨



을 주제로 제작됐다. 검정 몸체에 아이언맨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캐릭터 아이언 등을 입혔다. 제품을 켜고 끌 때 마블 로고와 아이언맨 캐릭터가 등장한다. 후방카메라, 외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에도 로고와 캐릭터를 새겨 넣었다. 가격은 45만9000원.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현대큐밍’ 첫 쇼케이스 현대백화점그룹 토털홈케어 렌탈기업인 현대렌탈케어가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현대시티를 가든파라비스에서 생활가전브랜드 현대큐밍 제품을 한곳에 모아 첫 쇼케이스를 열었다. 직수형 슬림 냉온정수기 ‘현대큐밍 더슬림’과 ‘큐비제로 냉온정수기’ 등 각종 생활가전 제품을 소개했다. 현대렌탈케어 제공

# G밸리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19일 개최

50개 기업 참여 100여명 채용

서울디지털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2017년 제2차 G밸리(구로·가산디지털단지) 우수기업 채용박람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G밸리컨벤션센터(구로롯데시티호텔 1층)에서 열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지역본부(구로구, 금천구, 서울관악구 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G밸리 우수기업 50여 곳이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기술(IT)업종과 온라인 마케팅, 광고 등 지식기반산업이 주를 이룬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국내 최초 물류 전사적 자원관리(ERP) 솔루션기업 한국비즈넷, 온라인쇼핑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 플레오모, ‘어리이야기’ 등을 내놓은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 엔에이치씨미디어 등 24개 사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하고

간접 참여 기업 30곳은 구인공고문을 비치한 뒤 박람회 이후 개별 면접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및 구직자 지원 정부정책 설명, 이미지 컨설팅, 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사진 촬영, 직업심리 검사, 경품행사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진다. 참여 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면접을 추천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박람회는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에 파악해 맞춤형으로 채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다. 산업단지공단 서울본부는 지난해 9월에 걸쳐 채용박람회를 열어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000여 명의 채용을 성사시켰다. 윤철 산업단지공단 서울본부장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도 우수 인력 100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제4차 산업혁명, ‘사람’과 ‘현장’을 스마트하게 준비하라

##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혁신 전략,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제4차 산업혁명은 ‘소통’이다 사람과 설비의 디지털 소통, 제조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기회를 잡아 도약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만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곳에 현장이 있고 사람이 있다. 세 번의 산업혁명을 인간이 주도했던 것처럼 네 번째 혁명의 중심에도 사람이 있다.

본문 중에서

## 기존의 자동화를 뛰어넘어 보다 새롭게!! 현장중심형 스마트팩토리